

윤호중 “검찰 개혁 매듭” 정면돌파 선언

민주 비대위장 사퇴론 일축

비대위 회의 쇄신론 놓고 내용

당 일각 사퇴 압박도 여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맞을 올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면서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검찰·경제계) 유착, 검정(검찰·정치권)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까지 선수별로 당내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모임을 했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위원장은 당내 의원 면담과 관련해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당 쇄신을 둘러싼 갈등의 일면이 드러나는 등 내용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재이배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 중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부동산·최저임금·기상자산 등 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재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반성문’ 발언을 했다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

과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측 대변인을 지낸 배재정 비대위원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운 것 아니냐”, “뭘 했다고 비대위원을 꺾었느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중을 요청했다.

그는 회의에서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시기”라면서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쇄신 문제는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귀결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오는 24일 재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분간 신경전이 이어지리라 관측이 나온다.

현재 6명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측 인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친 문 인사 간의 대결로 원내대표 판세가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의 정면 돌파 의지에도 사퇴 압박 역시 여전한 식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김두관 의원은 SNS에 “윤 비대위원장께서 당의 비상 상황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고집을 부린다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며 거듭 거취 정리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 당이 뭔가 내부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진행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질서 있는 수습을 하다가 또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역시 사퇴를 요구했다.

민병덕 의원 등 초선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계획에 있다”며 윤 위원장을 향해 검찰·언론·정치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원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연합뉴스

‘尹전제 지휘봉’ 누가 쥐나... 민주 원내대표 물밑 선거전 치열

후보군 6명 계파 대리전 양상

24일 경선... 양강 구도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2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가 5월 10일부터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172석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을 것인지 주목된다. 교황 선출 방식인 이른바 ‘콘클라베’ 투표로 선출하다 보니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은 없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선 안구백, 3선 김영협·박광운·박홍근·이원욱 의원(가나다순) 등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어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각 후보 간 약간의 톤 차이는 있지만, 협조할 건 하고 견제

할 것은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기조다.

특히 대장동 특검에 있어선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 상설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후보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별도의 일반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누가 되더라도 향후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공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문

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 기간 모두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측과 달리 민주당은 추가 국제 발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마찰이 예상된다.

전반적인 판세는 박광운·박홍근 의원간 이른바 ‘양박’ 대결로 흐르는 분위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분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각각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을 도왔다는 점에서 2차 ‘명-낙 대전’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같은 ‘정세균계’로 꼽히는 안구백·이원욱 의원은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영협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親文) 인사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등록후 사무소 설치·선거운동 가능

6·1지방선거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0일 시작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 선거 200만 원,군의원 선거 40만 원)을 내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시작하고 시작·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통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의회, 경북 산불피해 성금 전달

전남도의회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지원 성금은 초대형 산불로 전소된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총회를 거쳐 성금 전달을 결정하면서 “사상 최대의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타격을 받은 경북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작게

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고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힘을 내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경북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상생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경북지역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도의원들과 직원들이 특별 모금하여 물품을 전달했고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상호간 상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메가시티 광산’ 발표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인 윤난실(사진)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광산과 나주, 함평, 장성 등 지역연합을 통한 ‘메가시티 광산’ 정책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광산’은 황룡강과 영산강을 축으로 한 지자체를 연계해 산업과 경제, 먹거리의 새로운 상생모형을 구축해 향후 ‘1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 에너지, 함평 자동차 부품, 장성 나노기술 등의 산업 경제연합을 이뤄 광

산구의 미래성장 먹거리 동력을 창출하고, 3개 시·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확대와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과 공공기관, 기업의 농특산물 공동구매, 귀농귀촌, 농

촌 유학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덕수 전 총리실 비서관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은 지난 18일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주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나주공동체의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천년 만에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맞은 나주의 미래를 나주시민의 힘으로 힘차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넘쳐나고, 청년들이 활



가치게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영산강을 중심으로 마한문화 복원과 국민이 찾아오는 명품관광유원지 조성과 문화와 여가, 체육활동의 기반을 확충하여 불거리와 늘거리가 풍요로운 나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왕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